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0.(금) 13:30 배포 2026. 11. 20.(금) 06:00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맛보고 버무린 '제7회 김치의 날', 성황리 개최

- 품평회 수상 김치부터 김치 휘낭시에·붕어빵 등 이색 요리까지… 온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 외국인 김장 체험 및 미국·말레이시아·독일 등 전 세계 동시 개최로 글로벌 김치 붐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11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제7회 김치의 날 기념 행사'를 전 국민과 세계인의 큰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관계자 중심의 기념식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국산 김치를 맛보고 구매하며 직접 담가 보는 참여형 축제로 대폭 확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국산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깊이 있게 알리고, 외국인에게는 김치의 맛과 고유의 김장 문화를 소개해 우리 김치에 대한 관심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

1. 보고, 맛보고, 구매하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긴 김치 대축제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치품평회, 글로벌 김치요리 레시피 경연대회, 김치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어린이 김치 콘텐츠 창작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김치품평회 대상(국무총리상)은 경북 청도 농업회사법인 본가㈜의 '본가 총각김치'가, 최우수상(농식품부 장관상)은 전북 익산 나리찬㈜ 농업회사법인의 '나리찬 진 포기김치'가 받았다. 우수상 3점과 장려상 4점을 포함해 총 9점이 시상되었다.

글로벌 김치요리 레시피 경연대회에서는 김유빈 씨의 ‘김치 휘낭시에’와 제니퍼 핸슨(Jennifer Hanson) 씨의 ‘SEOULMATE(김치 슬로피 조)’가 각각 내국인과 외국인 부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치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농식품부 장관상)은 단호박과 가루쌀을 활용한 김치 스프레드를 제안한 ‘온한’의 이예린 씨에게, 어린이 김치 콘텐츠 창작 공모전 대상(장관상)은 온 가족이 신나게 타는 ‘맛있는 김치랜드’를 출품한 오연서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행사장은 김치의 다채로운 매력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득 채워졌다. 품평회 우수작과 요리 경연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시각 자료로 소개되었으며, 김치 휘낭시에, 김치 붕어빵, 김치 소시지 등 반찬의 경계를 넘어선 이색 요리 시식 코너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김치의 무한한 변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푸드트럭에서는 보쌈김치와 김치 주먹밥 등 친숙한 메뉴가 판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사)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원사 19개 업체가 참여한 김치 판매장에서는 국산 김치를 시중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국산 김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김치명인과 외국인이 함께 버무린 김장… 전 세계로 뻗어가는 김치의 날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김장 체험에는 김치명인과 외국인 체험객 35명이 함께 참여했다. 배우 김동준과 방송인 사유리·크리스티나도 동참해 명인에게 직접 김장 비법을 배우고 배추를 버무리며 한국의 고유한 김장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김치와 친숙해지고 일상 속에서 김치를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의 김장 체험과 축제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를 이끌어 온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말레이시아*, 독일 등에서 동시 개최된 것이다.

* 말레이시아는 현지 여건으로 11.13.~11.15.개최

미국에서는 김치의 날 현지 기념식과 김장 체험,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김치 강연, 독일 뮌헨의 '오대륙박물관(Museum Fünf Kontinente)'에서는 김치의 역사와 발효과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특별 전시 및 김장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각국의 독특한 식문화와 소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세계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김치를 접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3. 국민의 김치 소비를 세계인의 김치 소비로

농식품부는 이번 국내 대규모 국민 참여 행사와 해외 동시 개최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가 국산 김치를 더욱 가까이서 즐기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현지 기호에 맞춘 체험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가별 식문화와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과 응용 레시피를 지속 발굴하여, 세계인의 김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실질적인 소비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김치의 날은 국민 누구나 국산 김치를 직접 맛보고, 외국인 참가자도 함께 김치를 담그며 우리의 소중한 김장 문화를 경험하는 진정한 소통의 축제로 마련했다"며, "함께 담근 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첨단 발효·저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세계 어디서든 우리 김치의 제맛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영 (044-201-21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